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집중' 대학대 전환 '강한 드라이브'

익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 착수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책 수립에 돌입한다.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 관계자와 민

관학 일자리 거버넌스 기관 대표 및 용역수행업체가 참석해 익산시 일자리정책 수립 추진계획과 과업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 ▲익산시 제조업 전수조사 방안 ▲통계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산업 현황 분석방안 ▲효

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방안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 용역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자리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 정책 수요와 구인·구직 연계, 일자리 수행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일상 회복의 흐름에 맞춰 지역 구인구직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제조업 설문조사,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중간·완료보고회를 거쳐 올해 9월 민선8기 익산시 일자리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용역은 그간 한번도 시행해 보지 못했던 익산시 제조업 전수조사를 실시해 우리시 특성을 심층 분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익산시민의 고유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대, 대학부제 학사구조 개편안 전체교수회의 만장일치 통과

군산대학교가 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부제 학사구조개편안이 지난날 29일 군산대학교 전체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학대 전환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되었다.

군산대학교는 그동안 국내 대학이 직면한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작업을 강화해 단행해왔다.

군산대학교가 진행 중인 ICC기반 대학부제로의 학사구조 개편은 수요자 인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특성화 및 융합 교육을 통해 각 전공의 장벽을 허물어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전체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학사구조 개편안은 기존의 7개 단과대학을 HASS대학(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과 ONS대학(Ocea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등 2개 단과대로 통합하고, 법행정경찰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자율전공학부 등 산업융합특화

센터(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 4개를 본부 직속으로 신설하여 개편한 2개 단과대학 8개 학부 35개 학과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 단과대학 단위의 정량평가로만 이루어지던 교원업적평가도 학부 단위의 정량기반 정성평가를 추가로 진행되고, 산학협력단 산하 ICC를 신설하여 기업특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며, 예로기술 해결, 자문, 컨설팅 등 기업연계형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채용수요자인 기업들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학사구조 전환으로,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인재를 유연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군산대학교는 이 개편안 구축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학사구조개편위원회, 교수회의, 전체교수회의, 학무조정회는 물론 총학생회, 조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외부적으로는 군산시 의회와 군산시장 등 지자체와 동문, 언론인, 기업인,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등 지역 사회와도 여러 차례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정서를 꼼꼼하게 반영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군산시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복지증진,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 코로나 이후 가족관계 증진사업, 다문화 등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2,700만원으로, 군산시에 소재하고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당 1개 사업만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 23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어린이날 맞아

시골 여행 농촌체험 진행

익산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다양한 어린이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마을만들기협의회와 민간 협업을 스마트폰과 PC게임,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유·초등·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지역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날 시골여행 체험마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초등·청소년들에게 농촌체험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골여행 체험협동조합에서 기획한 것으로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동농촌테마공원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서동농촌테마공원에는 어린이 주제 경관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며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시골여행협동조합에서 미술쇼와 연주 공연, 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마당과 백제 의상 착용 체험, 고구마 빵 만들기,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봄바람 여행길, 해설사와 함께 동행투어 떠나요!

군산시, 시간여행마을 2개코스... 깊이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근대문화여행 운영

군산시는 5월부터 군산시간여행마을 일대에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동행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거리두기 조정인 이후 이달부터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대에 월요일을 제외하고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동행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에 중단됐다가 2년 3개월만에 재개하는 '동행투어'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문화예술 볼거리가 밀집해 있는 군산의 주요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 일대를 해설사와 같이 걸으며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두 개의 코스(모던로드, 타임로드)로 운영한다.

A코스(모던로드)는 정미갤러리·근대미술관·근대건축관·진포해안테마공원으로 이어지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다. B코스(타임로드)는 신흥동 일분식가옥·말랭이마을·풍곡사·초원사전판을 둘러보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코스별 오전·오후 총 4차례 운영하며 이당당 앞 시간여행 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한다.



군산시는 5월부터 군산시간여행마을 일대에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동행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관광이 대세인 가운데 동행투어는 최소인원 제한없이 1명이 요청해도 진행된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해설은 가끔씩 지양하고 야외에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5월부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본관 전체를 올해 말까지 휴관하며, 군산세관도

다가오는 9월까지 지붕보수 공사가 완료될 경우 동행투어 코스에 추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며 관광객들의 해설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동행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스러운 여행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풍년농사' 기원, 첫 모내기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군산시 첫 모내기가 지난 29일과 30일 옥구읍 선제리, 사정동 서수면 축동리 들녘 22필지 7.5ha에서 진행됐다.

이날 모내기는 성산면 김춘식씨가 조평벼와 해당벼 0.6ha, 서수면 이준숙씨가 조평 1호 3.3ha, 사정동 두홍년씨가 해당벼 1.6ha 등 조생종을 심어 오는 8월 말에 수확해 추석 전에 햅쌀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옥구읍 전재호씨는 신동진벼 20ha를 심어 조기수확 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조기 이앙재배에서 주의할 사항은 모심는 시기가 약간 온도가 낮아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 분얼 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기에 모심는 것보다 평당 이앙주수를 10~20% 가량 늘려 심고 모내기 이후에는 물을 깊게 대줘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시는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 2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돼 6월 상순경 1모작 모내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확대'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폐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재개할 경우 100만원의 다이로움 정책수당을 지원하는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폐업사업 기준이 익산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 익산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창업 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전자상거래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타지역에 본사가 있는 직영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2일부터 잔여 예산 소진일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익산종합운동장 소상공인가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시청 소상공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